

전주서 후백제 추정 토기가마 발굴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우아동 왜망실 일원서... 구조·출토 유물로 보아 고고학적 중요한 유적 평가

전주 우아동에서 후백제 때 토기와 기와 등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마가 발굴됐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은 지난해 10월부터 문화재청의 긴급발굴조사비를 지원받아 전주 우아동 도요지(가마터)를 조사한 결과 후백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토기가마를 발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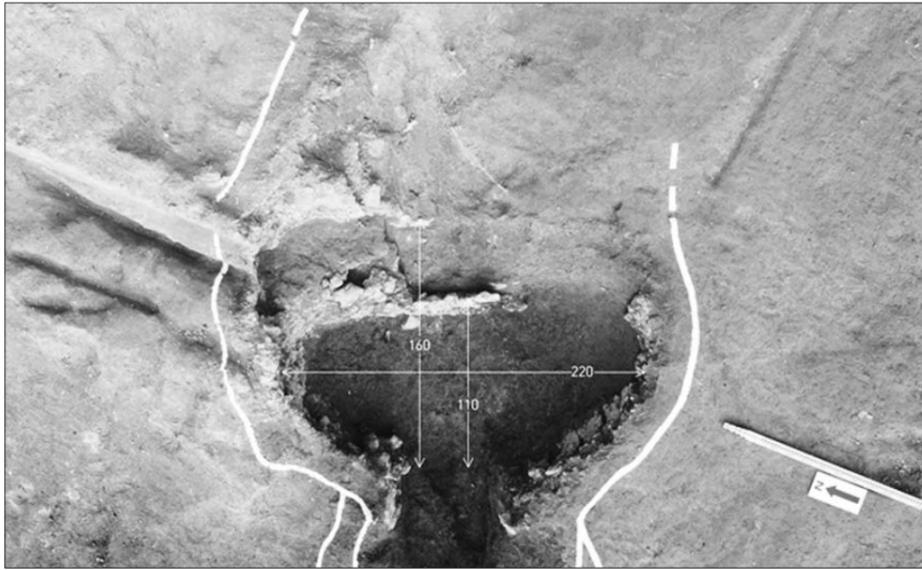
토기가마가 발굴된 곳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1108번지 일원 왜망실 지역으로, 후백제의 생산유적(生産遺蹟)이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토기가마는 진흙을 이용해 만든 반지하식 굴가마로, 토기를 구워 만드는 곳인 소성실(燒成室)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으나 연료를 연소시키는 연소실(燃燒室)과 아궁이, 배수로 구조가 확인됐다. 또 가마의 하단에서는 폐기장이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연소실의 경우 길이보다 너비가 두 배인 220cm였으며, 연소실의 불 기운이 소성실로 넘어가는 불력(불을 피우는 자리) 중간에 다이 형상(다이)을 특이한 구조로 돼 있다.

아궁이의 너비는 65cm 정도로, 아궁이 폭이 높고 연소실이 낮은 외고내저형(外高內低形)이었으며, 바깥쪽으로는 길이 50cm 내외의 배수구가 연결돼 있다.

연소실의 불덕과 아궁이 앞부분, 배수로를 살펴봤을 때 한 차례 이상 개·보수가 진행된 것으로 유추된다.



전주 우아동에서 후백제 때 토기와 기와 등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마가 발굴됐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또한 폐기장에서는 회색 연질(순흙)으로 새겨질 정도의 무늬 성질의 주발(밥그릇)과 회청색 경질(단단한 성질)의 항아리, 병, 장군 등이 출토됐다.

회청색 경질의 토기편에서는 토기를 구울 때 자체적으로 생기는 자연유약이 확인됐는데, 이는 토기에서 도기(陶器)로 전환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은 우아동 토기가마에서 출토된 토기가 전남 영암 구립도기유적과 전주 동고산성 주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제작시기를 나말여초(羅末麗初)인 후백제 시기로 보고 있다.

특히 토기가마의 구조로 보았을 때 국내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청자가마로 알려진 진안 도토리 유적과 연관성이 있어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우아동 왜망실 일대는 후백제와 관련된 토기 및 기와 등을 생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주변 지역에 대한 확대 조사를 통해 가마 운영시기의 생산체계를 규명하면서 향후 조사 성과에 따라 보존 및 정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청소년 지원 성과 담은 운영보고서 발간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와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콤포트)는 지난 한 해 청소년 지원사업의 성과를 담은 운영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중기 발전 로드맵(2018~2020)의 마지막 해인 지난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진로탐색사업 특성화 ▲전주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실시 및 청소년 정책수립 근거 마련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 등을 중점과제로 정해 모든 사업을 완료했다.

복지센터는 비대면 서비스로 전격 전환해 1만8,240건의 상담과 6만99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총 7만9,232건의 지원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2020 전국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종합평가 중도시형 'A등급' 선정 ▲2020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대통령 표창'(정혜선 센터장) ▲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기관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2020 전국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상'을 수상했으며, 그 밖에 우수청소년 및 우수상담자로 개인상을 받는 등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전주시 콤포트도 2020 그레도 관장은 콤포트'으로 운영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도전(학교 밖 청소년들의 도전과 성공사례 수기) ▲극복(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사업 운영) ▲소통(연계 기관 간 협력사업 및 부모-자녀 소통사업) ▲성장(연간 사업성과 및 수상내역) 등 네 가지 키워드로 구분해 다양한 성과가 담겼다.

김윤상 기자

전주만의 명품 보행공간 조성

시, 구도심 일대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사업 본격 착수

전주 구도심 일대를 명품 보행공간으로 탈바꿈시킬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충청로 사거리부터 병무청 오거리까지 구간과 한옥마을에서 전주시청을 잇는 구간을 명품 보행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보행환경 특화지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 내용이다. 시는 내년까지 국비 50억원 등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보행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비하고, 차보드는 사람 중심이라는 전주만의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게 된다.

사업 대상지는 ▲역사문화자원과 경관자원, 지역축제장소, 다양한 특화거리가 집합된 충청로 사거리부터 병무청 오거리 구간 ▲한옥마을에서 전주시청까지 구간 ▲현무2·3길 일원 등 약 2.7km, 총 12개 노선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인도가 없이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구간이어서 걷기 편한 환경으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시는 교통약자와 친환경·차세대 교통수단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해

충청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장소도 조성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한 단차 없는 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지역 주민의 참여 속에 이견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기로 했다. 도로, 교통, 버스, 상·하수도, 디자인, 도시재생, 도시미관, 문화재, 자치행정, 주민센터 등 관련 부서와 경찰서, 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상인회와 통장단 등 주민,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협의체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게 된다.

시는 사업 전 과정을 살필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고, 오는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 경관심의, 교통안전점심의 등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한옥마을 관광의 외연이 확대되고 국가관광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충청로 차 없는 거리, 전주국제영화제, 비법밥축제, 한지문화축제 등 관광·문화자원과 연계돼 침체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신청

전북지방병무청, 2월 17일~5월 24일까지 검사기간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이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접수받는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으로 바쁜 병역의무자들에게 본인 일정에 맞춰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2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일자와 장소를 공식 범위 내에서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북과 광주·전남지역 병역의무자들은 검사장소로 전북 또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둘 중 어느 곳이면 선택

이 가능하다. 전북지방병무청 검사기간은 2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이며 그 이후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검사일정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전북이 주소지라 하더라도 타지역에서 직장, 학교를 다니는 등 실거주지에서 검사를 받고 싶은 병역의무자는 해당 실거주지 관할 병무청 검사일정 중에 선택하면 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 또는 병무청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4억6300만원 부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 내달 1일까지 납부

전주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5만7,000건에 총 24억6,3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6만7,500원)부터 제5종(1만8,000원)까지 구분돼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모바일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 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국제청 사업장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해 안정적인 과세기반을 구축하고 누락이 없도록 노력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을 활용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vs.or.kr *전자우편 : jvvs@hanmail.net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